2026년 6월 9일

KIWOOM 이슈 분석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코스피 폭락 코멘트: 문제는 속도, 그 외는 OK

SUMMARY

- ✓ 6월 8일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8.3%, 9.1% 폭락하며, 올해 들어 3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
- ✓ 최근 변동성이 급격하게 증폭된 환경 속에서 이 같은 폭락은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주식 보유에 대한 피로감과 상실감을 유발하고 있는 상태
- ✓ 그러나 이번 조정은 펀더멘털발 조정(반도체 이익 피크아웃, 정책 동력 상실, 대형 외부 충격 임박 등)이 아니라 주도주 중심의 과도한 쏠림 현상과 높아진 레벨 부담이 초래한 조정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
- ✓ 코스피 7,400pt 선 이하에서는 기존 주도주인 반도체, MLCC 등 AI 밸류체인주, 양호한 실적 대비 5월 이후 급락이 심했던 증권, 유통, 방산, 조선 등 여타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비중 확대에 나서는 것이 적절

전일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8.3%, 9.1% 폭락하는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 양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는데, 올해 발동 횟수만 벌써 3회째다. 세부 결과도 잔혹했다. 코스피에서 상승 종목이 42개, 하락 종목이 873개로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의 격차는 -831개였으니, 사실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도주인 반도체 포함 거의 대부분 종목이 급락을 맞았다. 올해 3월 초 미-이란 전쟁 이후 모처럼 연쇄적인 패닉 셀링이 나온 하루였다.

이번 조정은 1) 지난 금요일 미국 5월 고용 서프라이즈에 따른 연준의 올해 12월 금리인상 우려 재확산, 2) 4일 브로드컴의 매출액 가이던스 컨센서스 하회에 따른 AI 투자 축소 경계심리 등에서 기인했다. 뿐만 아니라, 주도주인 마이크론을 중심으로 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금요일 하루 동안 10% 폭락을 했다는 점이 투자심리를 한층 더 냉각시켰던 상황이다.

연초 이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국내 반도체주 상승 -> 미국 반도체주 상승 -> 다음날 국내 반도체주 상승"의 긍정적인 순환 논리가 통용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난 금요일 국내 반도체주 급락 -> 미국 반도체주 급락 -> 월요일 국내 반도체주 급락"과 같은 부정적인 순환 논리로 변질된 것이 전일 투매의 본질이었다.

사실 5월 이후 미국, 한국 증시에서 반도체 쏠림 현상이 만들어낸 랠리를 연출하는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그 반대급부 현상인 단기 조정 혹은 숨고르기 국면을 대비하는 분위기였다. 많이 오른 주식일수록 조정도 많이 받는 것이 주식시장의 정설이라고 하지만, 문제는 예상 밖으로 조정의 강도가 격하다 보니, 매수에서 매도로 전면적인 포지션 변화를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VKOSPI는 여전히 70pt를 지속 상회하면서 이론상 일간 주가 등락률이 +/- 4%가 넘는 날들이 일상이었으니, 전일과 같은 역대급 폭락은 많은 주식 보유에 대한 피로감과 상실감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 조정을 유발한 것이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될 정도의 악재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시점이다. 전일을 제외하고 코스피 역사상 서킷 브레이커는 2000년 닷컴버블 붕괴(4월 17일, 9월 18일), 2001년 9.11테러(9월 12일), 2020년 3월 판데믹(3월 13일, 3월 19일), 2024년 8월 엔-캐리 청산(8월 5일), 2026년 3월 미-이란 전쟁(3월 4일, 3월 9일) 등 총 8회 출현했던 전력이 있다.

위의 사례 모두 버블 붕괴, 금융위기, 판데믹, 미-이란 전쟁 등 대형 외부 충격이 발생했던 시기였지만, 현재 증시 상황을 보면 그에 준하는 위기급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상기 언급한 이번 조정의 배경인 브로드컴의 AI 매출액 가이던스 기대치 미달, 연준의 금리인상 우려 등은 대형 위기의 전조 증상으로 보기엔 한계가 있다. 이보다는 반도체 중심의 쏠림 현상 심화 및 주가 상승 속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조정의 명분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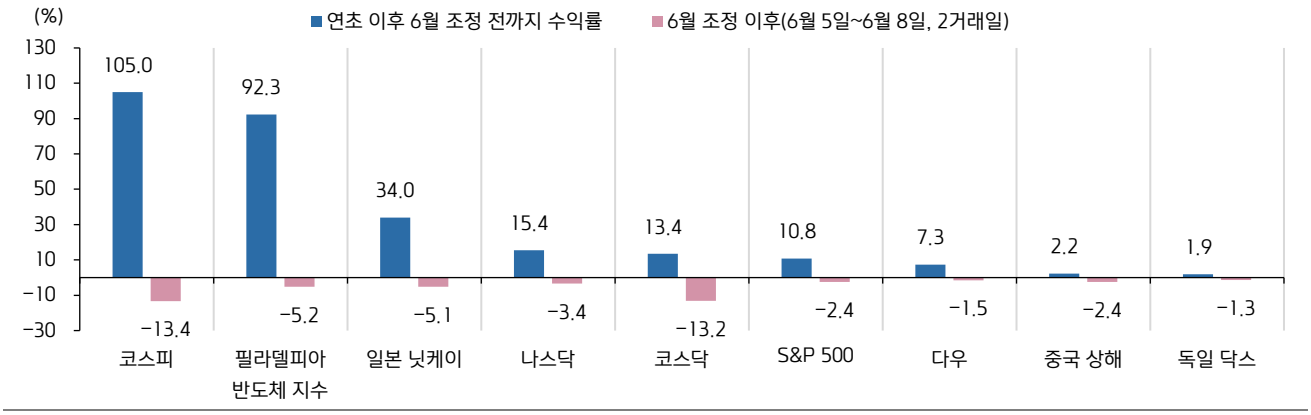
더 나아가, 과거 8차례 서킷 브레이커 발동 후 주식시장이 낙폭과대 인식이건, 악재 소화 인식이건 간에 주가 회복력을 보였다는 점도 주목해볼 부분이다. 코스피는 서킷 브레이커 발동 이후 D+5 영업일 기준으로 8번의 사례 중 7번의 사례에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코스피의 평균 수익률 관점에서는 D+5일 +4.5%, D+20일 +6.8%, D+60일 +31.8%로 집계됐다는 점도 역대급 폭락 이후 주식시장의 회복력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코스닥 역시 D+5일 +8.6%, D+20일 +10.3%, D+60일 +19.6%로 회복 탄력성이 존재했다는 점도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일단 전일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대 반등 소식이 국내 증시에서도 반등의 재료가 될 전망이다. 물론 전일 폭락이 주는 심리적인 충격이 컸기에, 이번 반등을 "비중 축소의 기회로 삼는 수요 vs 신규 진입 기회로 삼는 수요"가 대립하는 과정에서 주중 남은 기간 동안 변동성 확대 국면은 이어질 수 있기는 하다.

우선 단기 저점은 올해 3월 조정장 중 선행 PER 저점 레벨인 7.1배를 적용해 7,300~7,400pt로 제시한다. 주중 미국의 5월 CPI, 오라클 실적, 스페이스 X 상장 이벤트를 치르는 과정에서 7,400pt를 하향 이탈할 수 있겠으나, 일시적인 언더슈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익 모멘텀 가속화(YoY 기준, 코스피 12개월 선행 영업이익 증가율은 5월 +222% -> 6월 +229%), 여타 증시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 매력(선행 PER 약 7.2배 vs 미국 21배, 일본 17배, 독일 15배, 신흥국 12배) 등 이번 강세장의 고유 상승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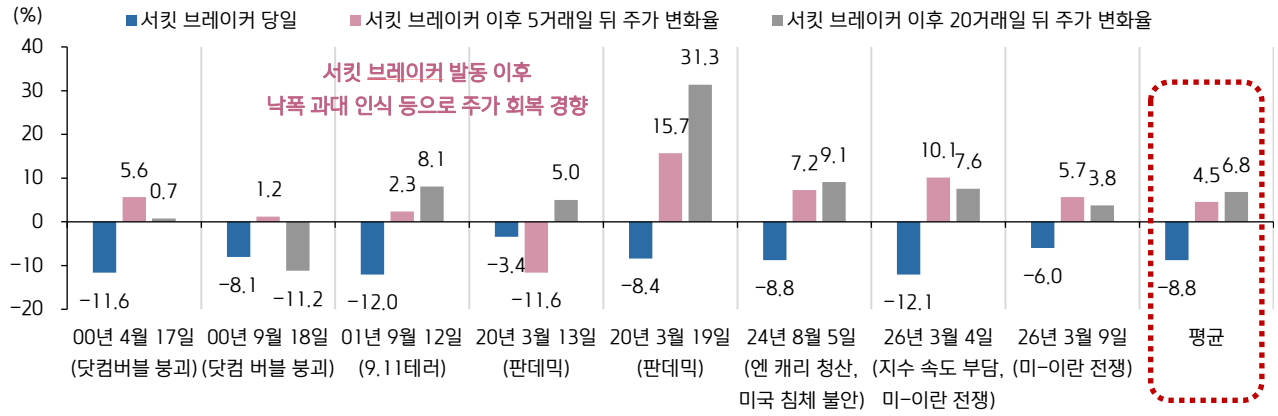
결국, 이번 조정은 펀더멘털발 조정(반도체 이익 피크아웃, 정책 동력 상실, 대형 외부 충격 임박 등)이 아니라 주도주 중심의 과도한 쏠림 현상과 높아진 레벨 부담이 초래한 조정 성격이 강하다. 이는 기존의 강세장 추세를 위협할 정도의 연쇄적인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7,400pt 이하에서는 기존 주도주인 반도체, MLCC 등 AI 밸류체인주, 양호한 실적 대비 5월 이후 급락이 심했던 증권, 유통, 방산, 조선 등 여타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비중 확대에 나서는 것이 적절하다.

연초 이후 이번 조정 직전 6월 4일까지 수익률 vs 조정 시기인 6월 5일~8일 거래일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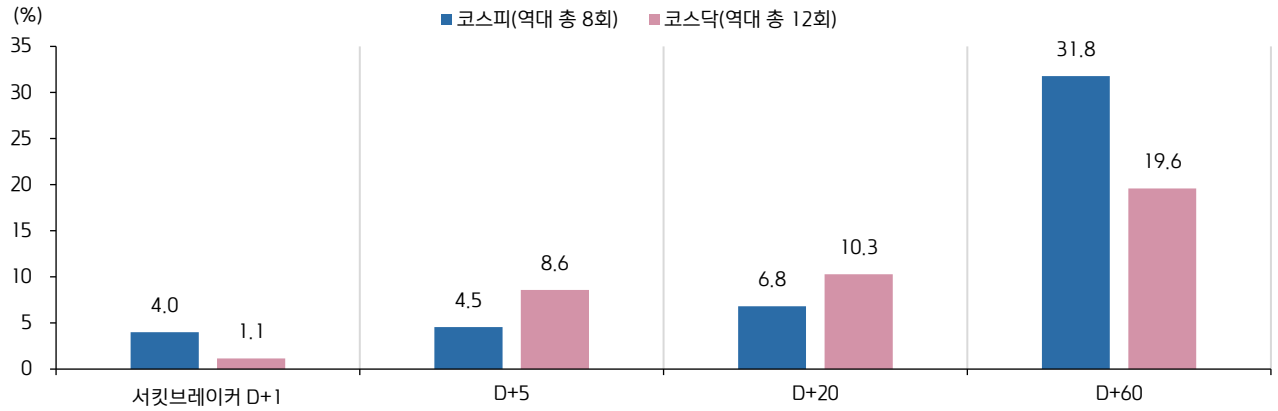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과거 서킷 브레이커 발동 후 코스피 주가 상승률: 이번을 제외하고 과거 총 8 차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으며, 발동 이후 주가는 빠르게 회복하는 패턴이 존재. 과거와 달리 현재는 펀더멘털이나 외부 충격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발동된 서킷 브레이커임을 감안 시, 지수의 추가 하락 베팅의 실익은 미미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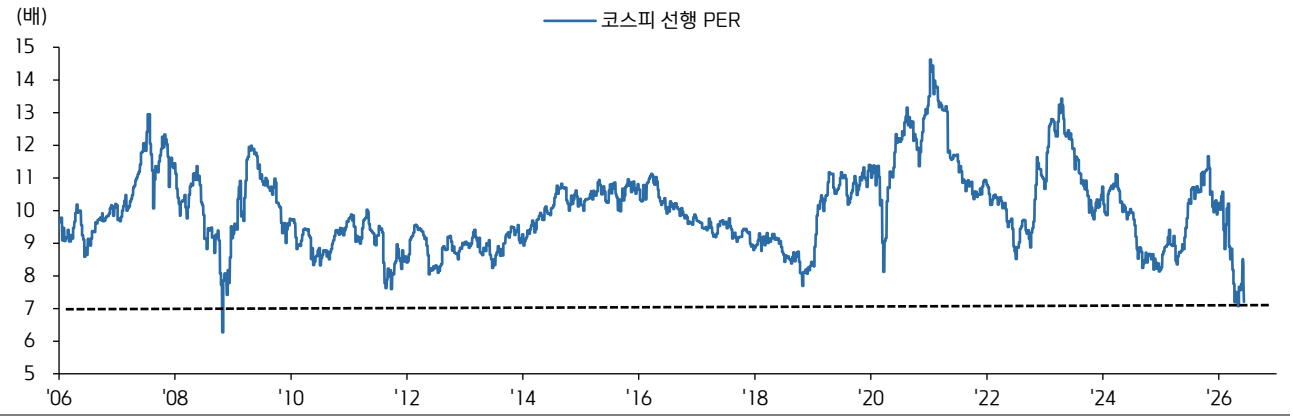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코스피와 코스닥의 역대 서킷브레이커 발동 후 D+1, D+5, D+20, D+60일 평균 수익률: 코스피에 비해 펀더멘털 동력이 부족한 코스닥 마저도, 서킷 브레이커 이후 주가 회복력을 보였다는 점도 추후 대응 전략에 반영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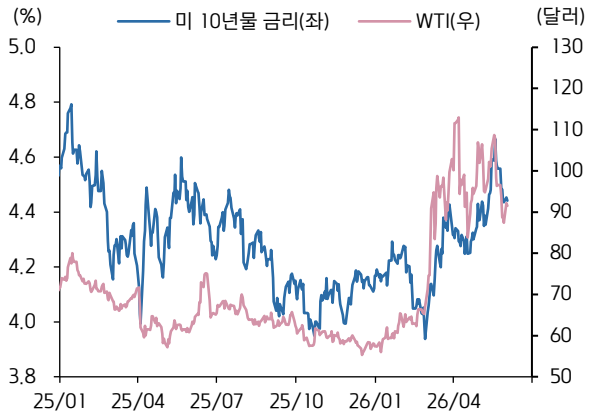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 밴드: 현재 코스피 선행 PER은 7.2배 내외 수준으로,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뿐만 아니라 미국(21배), 일본 (17배), 독일(15배), 신흥국(12배) 등 여타 증시 대비 상대적인 진입 매력도 여전히 높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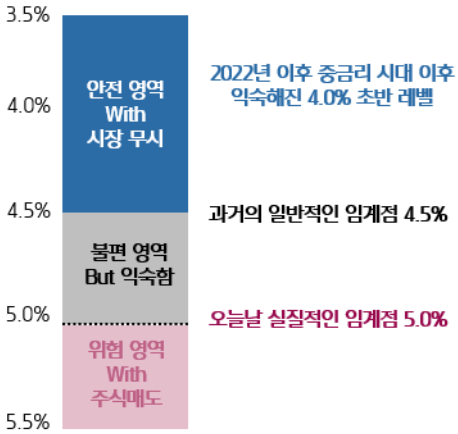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10년물 금리와 국제 유가: 표면상 조정의 명분을 제공한 것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연준의 긴축 불안발 금리 상승이었기에, 주중 미국의 5월 CPI, 미-이란 협상 체결 여부 등이 관건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10년물 금리 구간 별 시장 반응 분석: 10년물 금리 4.5%가 심리적인 증시 조정의 임계치로 불리기도 함. 그러나 이미 4.5~4.6% 레벨은 작년 이후 여러 차례 목도하는 과정에서 주식시장도 역치가 높아졌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



출처: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6월 8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